

보험업권 간담회 모두말씀

- 보험은 장래에 닥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개인 혼자만의 재력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다수의 참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대응하는 것임
 - 따라서,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‘상부상조’ 정신과,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‘장기적인 신뢰’에 있다고 생각함
 -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림
- **(사회적책임)** 최근 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,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람
- **(회계제도 안착)** IFRS17 도입에 따라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상품개발, 자산부채관리, 판매전략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
 - 이러한 변화가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 상품, 자산관리 등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장기적 신뢰 형성에 힘써주길 바람
- **(성장동력 확충)** 저출산·고령화,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비해,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지체되고 판매채널이 여전히 대면 중심에 머무는 등 대응이 다소 느림
 - 국민 실생활의 위험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혁신과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에 한층 더 힘써주기를 바람
 - 정부도 보험산업의 ‘혁신과 성장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음